

불자 세상보기



이강열 경기도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최근 우리의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 음악 그리고 연극 등 문화의 제 분야는 세계를 향해 능동적으로 진출하며 상당부분 인정받고 있다.

한류(韓流)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대중문화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한 관심사가 되며 콘텐츠 분야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류는 문화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이다.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논의로 보면 여러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로 접근해

도 문화가 갖는 순수성을 놓치기 쉽다. 한마디로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미국 최고의 음악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 우리의 아이돌 스타들이 무대에 섰다. 1만5000석의 좌석은 매진을 기록했고 관객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프랑스의 팬들이 파리 루브르박물관 입구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벌인 시위로 유럽 내 한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했

다. 이들은 하루만 잡힌 파리 공연을 늘려 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라이브가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열정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이 K팝의 어떤 면에 매료된 걸까. 한마디로 일단 색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럽엔 춤추는 아이돌이 없다. 반면 우리 가수들의 잘생긴 외모와 자극적인 노래 그리고 선정적인 춤 등 모든 부분이 재미있다.

어떻든 드라마 콘텐츠 중심의 한류가 지나고,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중심이 된 가치 새로운 열풍이다. 과거 한류의 기반이던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이제 문화의 중심인 유럽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이슈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거에는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후 해외에 알려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때문이다.

한류 열풍은 관광이나 뮤지컬 등 관련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아이돌 스타가 출연한 뮤지컬은 해외 팬들이 몰려 매진 사례를 빚을 뿐만 아니라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준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한 앞세우면 금방 실망한다. 수준 높고 세련된 프 로모션으로 팬들과 격의 없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한류가 국가의 이미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요청된다.

한류, 이제는 佛流가 불 차례

社說

불사심의위원회 반드시 만들어야

‘천박한 전통문화인식’을 가졌던 정부가 최근 불교계를 옥죄던 규제들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불사심의위원회는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주목받을 때이다. 불교계가 자구책으로 제시해 온 단골손님이다.

이에 불교계는 생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과 불사 난립 등으로 이어질지 모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7일 총무원장님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고 예산 수령 및 집행에 대해서는 중단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진정, 불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난다면 조계종의 미래, 불교의 앞날은 정권이 흐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5대결사의 시발은 템플스테이 지원금의 축소였다. 그러나 총무원장님의 담화문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대책이나 자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었다.

사회적기업과 호국도 나눔이다

조계종의 5대결사가 시작된 지 2년여가 지났다. 전국 교구본사마다 결의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5대(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결사의 외침을 들었다.

출애굽의 기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7일, 진관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과은평구민을위한기원대법회’는 자신의 목숨써서 나라를 위해 내놓는 호국은 나눔이라는 메시지를 일깨우는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9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종교계의 사회적기업 진출을 독려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인 ‘연우와함께’가 역사·자연환경·보건·음식·특화작품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일자리 창

우리는 지금껏 나눔을 보시행이라고만 말해왔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외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 타인의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 안정되게 해주는 무의시도 보시이다.

사부대중 칼럼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 동국대 외대교수

삶을 사노라면 몸과 마음에 때가 끼기 마련이다. 아침저녁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함으로써 몸의 때를 씻어내듯이, 마음의 때를 일상적으로 씻어내야 한다.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반갑고, 말문을 열어 긴장감을 깨트려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도 만나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더 깊이 공감

진솔한 만남이 그림다

수 있다. 불교와 상담의 접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을 섭렵하고 다녔던 7-8년 전 무렵에 만난 공부 방법과 체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리더(촉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음공부는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입 열기를 주저하다보니 대개 처음에는 정적이 감돌기 마련이었다.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반갑고, 말문을 열어 긴장감을 깨트려주어 고맙다는 마음을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도 만나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더 깊이 공감

하게 되고, 일순 긴장감이 풀어지고 상대방에 대해 연민과 자애를 느끼게 된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다른 참가자들도 말한 사람들의 마음 변화에 공명하면서 긴장감, 답답함, 시원함, 푸근함, 따뜻함 등 그때그때 흐르는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마음공부는 때론 깊은 속내의 응어리를 건드리기도 했다.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 회한, 화, 불안, 두려움 등이 표현될 경우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듣는 사람이 묻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보다는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했다.

더(촉진자) 역할 하는 사람이 불교 교리, 마음 관련 이론, 의사소통 기법 등에 대해 10여 분 간단하게 정리해 줄 때도 있었고, 10여 분 자애명상이나 호흡관찰명상을 하고 마칠 때도 있었다.

나의 경우 사람을 가슴으로 만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고, 말의 힘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였다.

아난존자께서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법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화제의 신간! 한국 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10월 15일 5월 15일 10월 15일 5월 15일